

보도 일시	2022. 9. 23.(금) 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9. 23.(금)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생물다양성과	책임자	과 장 박소영 (044-201-7245)
		담당자	사무관 이정원 (044-201-7287)

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

-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경기 용인(청미천)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, H5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.

※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~5일 소요 예상

-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, 최종적으로 저병원성(H5N3)으로 확인되었으며,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.

-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'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'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.

- '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'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(방역본부 초동대응), ②반경 10km 지역을 '야생조수류 예찰지역'으로 설정,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·검사 강화,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.

- 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.

-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, 지자체, 유역(지방)환경청,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*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.

*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(062-949-4366)

- 또한,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·보완하고 있으며,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, 매일 농장 내·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.

담당부서 <총괄>	환경부 생물다양성과	책임자	과 장 박소영 (044-201-7245)
		담당자	사무관 이정원 (044-201-7287)
담당부서	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 홍기성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 김석재 (044-201-2555)
담당부서	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	책임자	과 장 김원명 (062-949-4360)
		담당자	연구사 손기동 (062-949-4366)